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5수능

밑줄 긋기는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이다. 밑줄 긋기는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독자로 하여금 표시한 부분을 주의할 기울이도록 해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돕고,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뿐 아니라 학습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또한 밑줄 긋기는 방대한 정보들 가운데 주요한 정보를 추리는 데에도 효과적이며, 표시한 부분이 일종의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하여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에도 용이하다.

통상적으로 독자는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한다. 그러다 보면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져 밑줄 긋기의 효과가 줄어든다. 또한 밑줄 긋기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 되돌아가느라 독서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글을 읽는 중에는 문장이나 문단에 나타난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었다가 주요한 정보에 밑줄 긋기를 한다. 이때 주요한 정보는 독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또한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다. 밑줄 긋기 표시 체계는 밑줄 긋기가 필요한 부분에 특정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기로 독자가 미리 정해 놓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는 정보들에 동일한 기호를 붙이거나 순차적인 번호를 붙이기로 하는 것 등이다. 이는 기본적인 밑줄 긋기를 확장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밑줄 긋기는 어떠한 수준의 독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밑줄 긋기는 주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다.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 ② 밑줄 이외의 다른 기호를 밑줄 긋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③ 밑줄 긋기는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 ④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은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 유용하다.
- ⑤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2.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을 다시 읽을 때를 대비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밑줄 긋기를 하며 읽는다.
- ② 글 전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글을 읽고 있을 때에는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다.
- ③ 정보의 중요도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우선 밑줄 긋기를 한 후 잘못 그은 밑줄을 삭제한다.
- ④ 주요한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든 밑줄 긋기 표시 체계에 따라 밑줄 긋기를 한다.
- ⑤ 글에 반복되는 어휘나 의미가 비슷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며 글을 읽는다.

3.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밑줄 긋기를 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서 ‘ ’로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하였군.
- ②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서 ‘ ’, ‘ ’와 같이 순차적인 번호로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하였군.
- ③ 2문단에서 ‘ ’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요 어구에 밑줄 긋기를 하였군.
- ④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2문단에서는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에 ‘ ’를 누락하였군.
- ⑤ ‘ ’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3문단 내에서 정보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해 주요한 문장에 밑줄 긋기를 하였군.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409 압전체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잴다.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압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압전 효과에는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에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압전 효과와, 재료에 전압을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압전 효과가 있다. 두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 하며, 수정이 주로 쓰인다.

압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와 (-)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 수정 진동자이다.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압전체라도 압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 하는데,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다.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다.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한다.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 주파수 : 진동이 1 초 동안 반복하는 횟수 또는 전압의 (+)와 (-) 극이 1 초 동안, 서로 바뀌고 다시 원래대로 되는 횟수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압전체의 제작 방법을 소개하고 제작 시 유의점을 나열하고 있다.
- ② 압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압전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압전 효과의 종류를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른 압전체의 구조를 비교하고 있다.
- ④ 압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초정밀 저울의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압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이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정 이외에도 압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 ② 수정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한다.
- ③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 ④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
- ⑤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1차 압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 ② ㉠에서는 전압에 의해 압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 ③ ㉠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이 사용된다.
- ④ ㉠에서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춘다.
- ⑤ ㉠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압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7.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 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다.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단, 측정하는 동안 밀폐된 공간의 상황은 변동 없음.)

- ① A의 진동자에 있는 압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의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있겠군.
- ②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 ③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겠군.
- ④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다면,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작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더라도 알코올이 달라붙은 양이 서로 같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은 서로 같겠군.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309 유류분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frac{1}{2}$ 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 ③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9.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 ②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 ③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④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 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

10.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 ③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④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 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단,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 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frac{3}{7}$ 지분이다.
- 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 ④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frac{1}{3}$ 지분이다.
- 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1수능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 모든 사물,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이런 전선에서 두부 장수 종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도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라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란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그런데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 쾌덕스럽기까지 했다. 나미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앓아 갔던 아틀리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다. 실내엔 담배 연기가 짙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쩌다가 내가 나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다.

나는 D 고지에서 전투 중인 ○○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에서 거기까지 팔십 킬로 거리였지. 나와 한병장은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 T를 떠났어.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목원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챗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이란 길 바닥에 뒹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엔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어. 이따금씩 여우나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쏜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떼들은 갑작스런 불빛에 방향 감각을 잃고 윈도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해쓷한 표정으로 나를 힐끔 결눈질했을 뿐이야.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회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심연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혼자서 빙글 웃었어.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 늘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아뇨, 전연.” “대단하군. 여기선 적이 언제 어디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젠가, 제대가?” “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론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된 것이라 싶더군.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면 공중 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 불별 같은 폭염이 사정없이 쏟아져 그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중략)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묘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찾고 있는 ㉡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노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나는 그와 한마디 얘기라도 나눠 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다.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 걸엔 개가 종종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비치파라솔·괘짝·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물웅덩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히 솟아 나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한게 여겨진단 말인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

12.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③ [A]는 공간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하여, [B]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동을 제시하여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중심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B]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1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일상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나미’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다.
- ② ‘나’는 D 고지로 향하는 도중 음료수가 떨어져 곤란함이 가중된 상황에 처한다.
- ③ ‘나’와 ‘한병장’은 어둠을 밝히는 헤드라이트로 인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격을 받는다.
- ④ ‘나’는 임무 수행 중에 결혼할 계획을 밝히며 귀환 후의 꿈 같은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 ⑤ ‘나’는 전장에서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생동감을 느낀다.

14.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
- ② ‘나’는 ㉡의 정체와 ‘노인’이 ㉡를 찾는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 한다.
- ③ ‘나’는 ‘노인’이 ㉡를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한다.
- ④ ‘나’는 자신과 ㉠의 관계에 대해 타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⑤ ‘나’는 ㉠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노인’은 ㉡를 상실한 상태에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거나, 과거 경험을 후각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시각을 통해서도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한편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번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이는 ‘나’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①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의 느낌을 ‘나’가 ‘전선에서’ 느끼는 ‘전쟁 냄새’라고 지각하는 데에서, 과거의 경험이 상징적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군.
- ②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를 듣고 ‘뉘’은 ‘무의미하고 태평스럽’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나’의 현실 인식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군.
- ③ ‘돌’, ‘벌레’ 같은 것들을 ‘입체 영화’처럼 보며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 체감하는 데에서, 전장의 긴장 속에서 ‘나’의 감각이 극대화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군.
- ④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데에서, ‘나’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념적 현실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군.
- ⑤ ‘믿어지지’ 않는 ‘노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방 안을 오락가락’하는 데에서, 현실 인식에 대한 ‘나’의 번민이 행동을 통해 제시되고 있군.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309

(가)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A] 곱어보면 천심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때마침 부는 추풍(秋風) 반갑게도 보이도다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흰 두건을 걸쳐 쓰고 소정(小艇)을 타고 오니
㉢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갠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갈잎에 닳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린은순(紫鱗銀脣)* 수없이 잡아내어
연잎에 담은 회와 향아리에 채운 술을
실컷 먹은 후에
태기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희황천지(羲皇天地)*를 오늘 다시 보는가
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B] 추월(秋月)이 만강(滿江)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문득 의심은 월궁(月宮)에 올랐는 듯
물외(物外)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청경(淸景)을 다투면 내 분에 두랴마는
즐겨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도다

㉣ 아이야 달 들어라 만조(晩潮)에 띄워 가자

푸른 물풀 위로 강풍(江風)이 짐짓 일어
귀범(歸帆)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잠깐 사이 날개 돋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연파(烟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겠는가
강호 흥미(興味)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박인로, 「소유정가」 -

* 자린은순 : 물고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
* 희황천지 : 북희씨(伏羲氏) 때의 태평스러운 세상.
* 동파 적벽유 : 중국 송나라 때 소식(蘇軾)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

1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정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은 자연 경물을 ‘너’로 지칭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⑤ ㉤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17.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강호 자연에서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에 놓임으로써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B]에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강호 자연에 은거한 화자는 달을 대화 상대이면서 동시에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18.<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흥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세’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군.
- ②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복돋우는 자연 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는 자연 현상이라 볼 수 있군.
-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화자가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군.
- ④ (가)의 ‘녹류에 고기 껴어’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삶이,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의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군.
-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어부는 벗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군.

정답과 해설

01. ③ 02. ④ 03. ⑤ / 04. ⑤ 05. ④ 06. ⑤ 07. ②
 08. ② 09. ④ 10. ② 11. ④ / 12. ② 13. ① 14. ① 15. ④
 16. ④ 17. ③ 18. ②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4문단에서 밑줄 긋기는 어떠한 수준의 독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밑줄 긋기는 주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밑줄 긋기는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 ① 1문단에서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서 유용하다고 하였다.
- ② 3문단에서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④ 1문단에서 밑줄 긋기는 표시한 부분이 일종의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하여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하였다.
- ⑤ 1문단에서 밑줄 긋기는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2. 세부 내용 추론

정답 해설:

1문단에서 밑줄 긋기는 방대한 정보들 가운데 주요한 정보를 추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기,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 사용하기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한다는 것은, 주요한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든 밑줄 긋기 표시 체계에 따라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 ① 2문단에서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밑줄 긋기의 효과가 줄어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밑줄 긋기를 하며 읽는 것은 밑줄 긋기의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2문단에서 통상적으로 독자는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한다고 하였다. 또 3문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었다가 주요한 정보에 밑줄 긋기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 전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글을 읽을 때에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밑줄 긋기의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2문단에서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 되돌아가면 독서의 흐름을 방해받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선 밑줄 긋기를 한 후 잘못 그은 밑줄을 삭제하는 것은 밑줄 긋기를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반복된 어휘나 비슷한 문장마다 밑줄을 그으며 글을 읽으면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져 밑줄 긋기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반복되는 어휘나 의미가 비슷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밑줄 긋기를 하며 글을 읽는 것은 밑줄 긋기의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학생이 밑줄 긋기를 한 사례는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을 ‘독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3문단의 ‘고래는 폐로 호흡하므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라는 정보는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독서 목적’을 고려할 때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한 주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 ①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이라는 독서 목적을 고려할 때 ‘포유동물’이라는 정보는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 ’로 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이라는 독서 목적을 고려할 때 ‘암컷들은 새끼를 낳을 때 서로 도와 주며, 어미들은 새끼들을 정성껏 보호한다.’라는 정보는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순차적인 번호로 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이라는 독서 목적을 고려할 때 ‘고래의 생김새’는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요 어구라고 할 수 있다.
- ④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이라는 독서 목적을 고려할 때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라는 정보는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와 같은 밑줄 긋기가 추가되어야 한다.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 해설:

2문단에서 압전 효과의 개념을 제시한 후, 3문단에서 압전 효과를 이용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4, 5문단에서는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 ① 2문단에서 압전체인 수정을 가공하여 수정 진동자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나, 압전 효과가 생기는 재료인 압전체 자체를 제작하는 방법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제작 시 유의점에 대해서도 나열하고 있지 않다.
- ② 2문단에서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로 나누어 압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압전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 ③ 2문단에서 압전 효과를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그 분류에 따른 압전체의 구조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은 없다.
- ④ 2문단에 압전 효과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을 뿐 압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3문단에서는 고유 주파수, 질량 민감도 등의 개념을 통해 초정밀 저울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2문단에 따르면, 같은 재료의 압전체라도 모양과 크기에 따라 고유 주파수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 ① 2문단에서 1, 2차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 하며, 압전체로는 수정이 주로 쓰인다고 하였으므로 수정 이외에도 압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에서 수정을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수정 진동자를 만

든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여 미세 질량을 측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1문단에서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잴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3문단에서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6. 세부 내용 추론

정답 해설:

3문단에 따르면, 수정 진동자의 전극에 (+)와 (-)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는데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게 한다고 하였다.
㉠(수정 진동자)의 전극에 가하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을 압전체인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키면,
압전체의 진동 폭이 커지지만 고유 주파수는 달라지지 않는다.
주파수는 진동 폭이 아니라 진동 횟수와 관련된 개념이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 ① 2문단에서 수정이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인 압전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3문단에서 ㉠에 수정이 쓰인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에는 1차 압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3문단에서 ㉠의 전극에 (+)와 (-)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해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때 ㉠에서는 전압으로 인해 압전체인 수정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나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3문단에서 수정을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들고,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들어 수정 진동자를 만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이 사용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3문단에서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와 (-)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는데,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3문단에 따르면,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으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하는 원리로 질량을 측정한다.

따라서 수정 진동자에 달라붙는 물질의 양에 따라 주파수의 감소 정도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기체의 농도에 따라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하여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데, 감소 정도는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크다.

따라서 <보기>에서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다면,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지 않았을 때보다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크게 감소해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달라붙었을 때보다 더 작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5문단에 따르면,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A의 진동자에 있는 압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혼합 기체에서의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없다.

③ 4문단과 5문단에 따르면, 수정 진동자에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한 것은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통해 특정 기체의 농도를 알기 위함이다.

<보기>에서 A와 B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알코올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지,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④ 5문단에 따르면,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어 농도의 민감도를 구한다.

따라서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A가 B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농도에 대한 민감도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는 반응 시간이다.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이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 B의 반응 시간이 A의 반응 시간보다 더 짧다.

8.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3문단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 받은 이익을 뺀 값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전부가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유류분권의 보장 범위가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서 유류분권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1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인이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2문단에는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류분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상 처분된 재산이지,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아니다.

⑤ 1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에는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

즉,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9.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해설:

3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나,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하더라도 무상 취득자와 유류분권자가 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돈으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재산 자체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되고,

무상 취득자와 유류분권자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 ① 4문단에 따르면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게 된다. 그러므로 유류분권자는 물건이 한 개일 때,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인 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
- ② 4문단에 따르면 '지분'은 하나의 물건(무상 처분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진 경우, 각자의 몫을 뜻한다. 유류분 부족액이 커지면 물건에 대한 유류분권자의 지분도 커지게 된다. 이때 무상 취득자는 유류분권자에게 더 많은 몫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지분이 작아진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을 때 유류분권자는 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진다.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해 유류분권자가 무상 처분된 물건 대신 돈을 반환받을 수는 있으나,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는다든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0.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해설:

2문단에 따르면 유류분의 정의는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무상 처분된 재산도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 계산을 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산정한다. 즉,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가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 ① 유류분이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한다는 것은 유류분의 취지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관련이 없다.
- ③ 유류분의 취지는 피상속자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지,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는 관련이 없다.

- ④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의 몫이 지분으로 반영되는 것은 유류분의 취지나 유류분 부족액 산정 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상속 개시 후의 가치 변동까지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1.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유류분은 (A 물건의 가치 + B 물건의 가치) × 1/2, 즉 (300 + 100) / 2 = 200이 되므로, 여기에서 이미 상속받은 재산 100을 뺀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 된다.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A 물건에 대한 병의 지분은 100 / 700이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1/3이 아니라 1/7이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 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라면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유류분은 (700 + 100) / 2가 되므로, 여기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 100을 뺀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 된다.
- 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가 700이므로, 병이 반환받을 수 있는 지분은 300 / 700, 즉 3/7이다.
- 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라면 무상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유류분은 (300 + 100) / 2이므로, 여기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 100을 뺀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 ⑤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인 B 물건의 시가는 100이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은 200이고,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는 400이다. 갑의 재산 100은 두 경우 모두 병이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갑으로부터 병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12.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A]는 ‘나’가 베트남에서 겪은 과거의 일을 나미에게 들려주는 부분의 일부로, ‘말했어’, ‘고장났지’, ‘트더군’, ‘싫더군’, ‘문제였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어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경험한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한편 [B]에는 ‘나’가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는데, ‘~ 눈에 잡힌다’, ‘~ 짐을 내린다’, ‘~ 있을 곳에 놓여진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나’가 보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 ① [A]는 ‘나’의 회상에 의한 부분이며, [B]는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서술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A]는 ‘나’가 당시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스스로 전달하는 내용이고, [B]는 ‘믿어지지 않는다’와 같이 서술자가 주관적 정서를 담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A]에는 인물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공간 이동 상황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탑승한 두 인물은 공동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지 외적 갈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B]는 노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을 뿐 공간에 대해 특별히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인물들의 외적 갈등 또한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A]는 한병장과 ‘나’의 대화를 삽입하고 있지만, 삽입된 대화가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무서움, 결혼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있을 뿐이다. [B]는 ‘나’의 눈에 비친 노인의 행동을 제시할 뿐,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 ⑤ [A]에 중심인물인 ‘나’의 말이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그 말은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인물과 각자의 감회나 기대에 관해 나눈 일상적인 대화일 뿐 사건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한편 [B]에는 주변 인물의 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해설:

‘나’는 전선(베트남)에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주변의 모든 사물,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단된 느낌을 품은 채, 그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흥미나 관심도 갖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렇듯 삶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중에, 며칠 전 다방에서 나미를 만나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 ② ‘나’가 D 고지로 향하는 중 음료수가 떨어져서 곤란함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음료수가 떨어져서 곤란을 겪고 있는 D 고지의 연대원에게 물을 실어다 주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 ③ ‘나’는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엔진이 고장난 상태에서 동이 터 오자 날이 밝으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중 사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 ④ 결혼 계획을 밝히며 제대 이후의 삶을 언급한 것은 한병장이다.
- 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나’가 전선에서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해설:

‘나’는 오늘도 노인이 나타나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대체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공터에 나타난 노인은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는 행동을 변함없이 계속하여 ‘나’를 놀라게 한다. 그러므로 ‘나’가 ‘노인’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 ‘물건’을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 ② ‘나’는 ‘물건’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노인이 그토록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인지, ‘물건’의 정체와 노인이 ‘물건’을 찾는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 한다.
- ③ ‘나’는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라며, 노인이 ‘물건’을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④ ‘나’는 자신이 ‘모든 사물’로부터 차단된 상태라고 느끼는 것과 관련된 자신 안의 긴장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지만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 ⑤ ‘나’는 ‘모든 사물’로부터 차단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주변의 모든 사물로부터 소외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노인은 ‘물건’을 열심히 찾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는 무언가를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보기>는 이 작품이 시각을 통해 긴장 상태에서의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 주는 한편,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나’가 한병장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때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나’의 감각이 어둠 속의 모든 사물들에 대해 극도의 미세한 것까지도 정밀하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나’의 체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집에 돌아온 자신이 아직도 집 안의 상황을 ‘전선’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내 몸에 밴 전쟁 냄새’ 때문이라며 후각을 활용하여 말하고 있다.
- ② ‘나’는 자신을 둘러싼 일상생활의 다양한 소리에 대해 ‘밖’은 ‘무의미하고 태평스럽’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나’는 전선에서 돌아온 자신이 아직도 타인과 다른 현실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 ③ 한병장과 한밤중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에서 ‘나’는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 ‘돌’, ‘벌레’ 등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는 전장의 긴장감 속에서 ‘나’의 감각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⑤ ‘나’는 노인의 행위가 자신의 예상과 달리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당황한다. 이런 당황스러움은 노인과 관련한 ‘나’의 현실 인식이 빛나간 데에서 비롯되며, ‘방 안을 오락가락하는 ‘나’의 행동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16.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㉔은 ‘~어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땀’을 드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배의 운항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 ① ㉔은 ‘산두에 ~ 일고’와 ‘수중에 ~ 난다’가 서로 대구를 이루며 ‘산’, ‘운(구름)’, ‘수(강)’, ‘백구’와 같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가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㉔은 자연 경물인 ‘한운’과 ‘백구’를 ‘너’로 지칭하면서 화자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일생’에 걸쳐 ‘좃아 놀리라’라며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③ ㉔은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이라는 자연 경물이 ‘석양에’, ‘눈’과 같이 어지럽게 흩날리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㉔은 화자와 유사하게 강에서 뱃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인 중국 송나라 때의 소식도 화자의 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비교하여 말함으로써 뱃놀이를 마음껏 즐기는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17.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정답 해설:

[B]에서 화자는 가을날 밤에 뱃놀이를 하던 중,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강물에 비쳐 마치 강물에 잠긴 것처럼 보이는 달 사이에 놓여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화자는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 ① [A]에서 달은 시공간적 배경과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로 나타나 있다.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강호 자연에서 ‘무심(욕심이 없음)’을 느낄 뿐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지도 않다.
- ② [A]에서 화자는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달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 ④ [B]에서 화자는 가을의 계절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거나, 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⑤ [A]와 [B] 모두 화자가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두 화자 모두 달을 대화 상대로 삼고 있지 않고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도 않다.

1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나)의 '추풍'은 '때마침 부는' 것으로서 화자가 '반갑게' 생각하며, 어촌으로 '내 놀이'를 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풍'은 귀범(멀리 나갔던 돛단배가 돌아옴)을 돕는 자연 현상으로서 뱃놀이의 흥취를 유지시키고 있으나,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흥진'으로 표현된 속세의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면서 '인세(인간 세상)'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한다.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모두 작은 배에 속한다. 이는 화자가 강호 자연 속에서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녹류에 고기 꺾어'는 강에서 잡은 고기들을 버드나무 가지에 꺾어 모아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이며, 이는 강호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강호 자연 속에서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다.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라고 노래하며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나)의 어부는 '뱃'을 불러 어촌에 와서 함께 흥겨운 뱃놀이를 하였으며, 이로부터 '희황 천지를 오늘 다시 보는', 동파 적벽유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흥을 느끼고 그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만약 파본 검사를 감독관이 거부할 경우

이상한 원리원칙을 내밀며 어떤 일이 있어도 페이지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6년도 수능 실시요강 문서 p.21

1교시 준비령의 진행요령 란
- 문제지 문형, 페이지 수 확인 및 문형 표기

이 부분을 파본 검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요구하면 됩니다. 감독관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감독관이 허가했으므로 수험생에게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이 “페이지수만 확인하는 것이지 내용을 봐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할 경우,

“만약 인쇄 오류로 시험 도중 시험지를 교체하거나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은 감독관님이 책임을 지실겁니까? 시험 흐름도 끊기고 교체까지 수 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만약 불이익이 생길 경우 소송하겠습니다. 감독관분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이정도까지 갔다면 공무원의 성향상 파본검사를 진행할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싸움을 거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맘편하게 없다고 치고 가세요. 여기서 화내면 시험에 지장이 갑니다. 큰 차이 없어요.